광남일보

조간 제8142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음력 6월 24일)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30년 미래 담는다

호남 반도체 팹 핵심은 '인수전지(人水電地)' 〈3〉 부지

250만평 평탄한 지형·확장성 갖춘 최적 입지
국가산단 조성 '속도전'…올해 말 착공 목표
메가 팹 품을 대규모 연속부지 경쟁력 확보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부지로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정동 군 공항 일원. 국토교통부는 사업 예정지인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반도체 공장은 건물 한 동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산라인이 늘어나고 장비·소재 기업이 뒤따라 들어오며 연구시설과 물류 기반이 더해져 하나의 산업도시로 성장한다.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신규 생산기지를 결정할 때 전력과 용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지'다. 당장 필요한 공장 면적보다 앞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협력기업과 연구시설을 함께 품을 수 있는지가 투자 판단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부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로 광주 군공항 이전 예정지를 선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현재 생산시설 몇 개를 배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투자와 증설을 담아낼 산업 거점 최적지로 판단한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광주 군공항 이전 예정지 일원 826만㎡(약 250만평)에 조성된다. 국내 반도체 산단과 비교해도 대규모 부지에 해당한다.

군 공항 부지에 메인 팹(Fab)의 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시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목표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일반 제조공장과 구조부터 다르다. 초미세 공정을 진행하는 클린룸을 비롯해 초순수 생산시설, 특수가스 공급설비, 폐수처리시설, 물류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하나의 생산 체계처럼 연결돼야 한다.

공장과 지원시설이 떨어져 있거나 부지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기반시설을 중복 구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히 넓은 땅보다 하나로 이어진 대규모 연속부지를 선호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평택은 대규모 부지를 먼저 확보한 뒤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성장했다.

대만 TSMC의 신주·타이난 과학단지도 마찬가지다. 생산시설이 들어선 이후 장비업체와 소재기업, 연구기관이 모이며 세계적인 반도체 생태계로 성장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같은 전략이다. 당장의 생산시설 확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투자와 기업 집적까지 고려해 공간을 먼저 마련하는 방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의 가장 큰 강점은 대규모 연속부지와 평탄한 지형이다.

공항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넓고 평평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부지 정비와 평탄화가 이뤄져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미세한 진동과 환경 변화에도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정비된 부지를 활용하면 대규모 절토와 성토 작업을 줄일 수 있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경쟁력은 미래 투자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 번 공장을 짓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기술 변화와 시장 수요에 따라 새로운 생산라인을 추가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는 투자가 지속된다.

처음부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TSMC 주요 생산기지가 초기부터 대규모 부지를 확보한 것도 이런 이유다.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은 현재 몇 개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성장할 공간을 확보했느냐의 싸움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메인 팹뿐 아니라 후공정 시설과 연구개발센터,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품을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는 생산기업 하나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장비업체와 소재기업, 설계기업, 연구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야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군공항 이전 부지가 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은 소음과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전 이후에는 826만㎡ 규모의 공간이 호남 미래산업을 담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2면으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국방부, 군공항 최종 이전 부지 연내 확정

이달 이전 후보지 지정…무안군 지원책 구체적 수립

국방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최종 이전 부지를 연내 확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무안군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이달 중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연내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까지 마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처음으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전남광주시, 무안군 등과 이전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초 광주 군 공항 부지 826만㎡(250만평)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등이 입주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차 선정위 개최가 밀리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산업단지 조성 계획,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현재 주둔 부대 이전 계획이 모두 연달아 밀리는 모양새다.

군공항 이전이 목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무안군의 수용이 최대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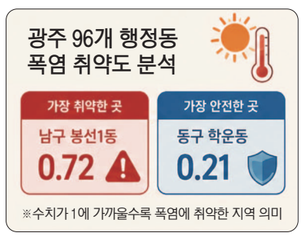
무안군은 그동안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선이전, 정부·특별시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RE 100 기반 분산 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330만㎡ 지정) 등 3대 선결 조건을 요구해 왔다.

이 가운데 민간공항 선 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은 정부와 특별시가 이행 방향에 공감하면서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무안 국가산단은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미분양 발생 시 절반인 50만평의 분양을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무안군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보증 카드를 꺼내 든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우리 동네 폭염취약도는 몇 점?

봉선1동 '최고', 학운동 '최저'



"가장 더운 동네가 가장 위험한 동네일까?"

많은 시민들은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 폭염에도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는 달랐다. 광주 9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한 폭염 취약도 분석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남구 봉선1동(0.72), 가장 안전한 곳은 동구 학운동(0.21)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봉선1동이 기상 관측값만 놓고 보면 '가장 더운 동네'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표면 온도는 96개 동 가운데 42위였고, 폭염일수는 37위, 열대야 일수는 59위 수준에 머물렀다. 체감온도 역시 최상위권은 아니었다. 단순히 기온만 비교했다면 상위권에 오르기 어려운 수치다.

그럼에도 봉선1동이 폭염 취약도 1위를 기록한 이유는 폭염정보 통합서비스가 기온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환경적 특성까지 함께 평가하기 때문이다. 고령자와 영유아 비율, 노후주택 분포 등 폭염 피해 가능성과 의료시설 접근성, 녹지와 그늘막 등 폭염 대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학운동은 기상 여건부터 달랐다. 폭염일수는 7.1일, 열대야는 11일, 일평균 최고 체감온도는 27.7도로 모두 광주 96개 동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표면 온도 역시 낮은 수준을 보여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모두 상대적으로 적었고, 종합취약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폭염정보 통합서비스의 '종합취약도'는 단순한 기온 순위가 아니다. 지표면 온도와 체감온도·폭염일수·열대야 등 기상 요인, 고령자·영유아 비율과 노후주택 등 피해 가능성, 의료시설·녹지·그늘막 등 대응 여건을 종합해 0부터 1까지의 지수로 산출한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폭염에 취약한 지역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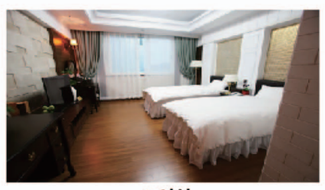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회원모집 안내

(단위:백만원)

구 분	분양금액	구좌	회 원 특 전
VVIP (A형)	700	6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1일 · 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그린피50% 할인, 연25회그린피면제 (1일 · 1회 사용) 지정회원에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 · 1회 사용) 비회원에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 · 1회1팀4인 기준)(단,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 · 1회만 사용가능)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 · 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 · 1회 사용)
VVIP (B형)			- 회원 없음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1일 · 1회1팀4인 기준)
VIP 정회원	500	9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1일 · 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그린피면제(1일 · 1회 사용)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 · 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 · 1회 사용)
하트 정회원	320	5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 · 1회 사용), 골프텔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 · 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 · 1회 사용)
해피 정회원	180→160 (할인 20)	3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 · 1회 사용), 골프텔 할인혜택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 · 1회 사용)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골프호텔 객실



- 2 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HAPPINESS COUNTRY CLUB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